

21세기 에너지 전쟁의 점화

현대경제연구원 상무 유병규

새해 벽두에 발발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가스 분쟁이 개전 나흘 만에 종결되었다. 이번 사태는 두 나라 사이의 감정 싸움에서 비롯된 일시적인 돌발 사건에 불과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세계 언론의 논조에는 21세기 에너지 전쟁의 시작이라는 우려가 짙게 배어 있다. 러시아가 친서방 성향을 지닌 우크라이나의 현 정부에 대해 가스를 무기로 타격을 가하려 했고, 그 과정에서 동일한 공급관을 지닌 유럽이 에너지 공급 중단에 두려움에 빠졌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이번 사태를 러시아 에너지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중국과 일본에 대한 러시아의 영향력 과시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다시 말해 이념 대립에 기반을 둔 20세기 냉전 체제가 붕괴되고 경제 전쟁 시대가 된 21세기 세계화 시대에서는, 경제 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에너지가 20세기의 핵폭탄처럼 적대국을 정치 경제적 파탄에 빠뜨리는 가공할만한 무기 중의 하나가 될 수 있음을 이번 사건은 실감나게 보여 준 것이다. 사실 러시아는 21세기에 들어서 미국과 러시아 사이에 전략 핵무기 감축 협정이 조인되면서, 에너지를 차세대 전략 무기로 고려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에너지 자원을 무기로 한 국가간 갈등이 세계 경제에 얼마나 큰 충격을 주느냐 하는 것은 이미 1970년대 중동 산유국들이 주도한 '석유 파동'을 통해 체험한 바 있다. 이 당시 세계 경제가 극도로 침체하면서 물가는 급등하여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새로운 경제 현상이 나타나 기존의 경제 시스템과 이론은 모두 수정되어야 했다.

금세기 에너지 전쟁에 대한 우려는 세계 각국을 치열한 에너지 확보 경쟁으로 내몰고 있다.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의 세계 전략이 에너지 확보를 염두에 두고 수립되고 있음은 더 이상 비밀스런 음모 취급을 받지 못한다. 미국과 유럽이 중동 정세에 지대한 관심을 갖는 것은 이 지역의 자유와 평화라는 거창한 명분 못지않게 석유 자원 확보 때문임은 이제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중국이 그동안 적대국이었던 인도와 손을 굳게 잡고 동유럽과 아프리카 국가들 그리고 이란 등

과 외교 관계를 강화하는 것 역시 세계 제일의 자원 소비국인 중국의 치밀한 자원 확보 전략인 것이다. 이에 뒤질세라 일본도 해외 에너지 자원 개발과 에너지 수급선의 다변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가스와 원유 등 화석 에너지 확보와 함께 에너지 전쟁의 대응 수단으로 적극 추진되고 있는 것이 대체 에너지 개발이다. 머지않아 수소와 연료 전지와 같은 신에너지가 상용화되면서 새로운 성장 산업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앞으로 에너지 자원의 안정적인 확보 여부는 한 나라 경제의 경쟁력과 생존력을 결정하는 중요한 척도가 될 것이다. 한국은 석유 사용량이 세계 6위이고 이의 전량을 거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석유 수입량은 세계에서 네번째로 많다. 그야말로 에너지 사용 대국인 한국의 에너지 자원 확보 수준은 너무나 취약한 실정이다. 전체 석유 수요량 중에서 자체 개발을 통해 공급하는 정도를 나타내 주는 석유 자주 개발률이 한국은 현재 3% 수준에 불과하다. 이는 일본의 11%나 중국의 18%에 비해 월등히 낮은 실적으로 한국은 안정적인 석유 공급이 불가능한 형편에 처해 있다. 대체 에너지 개발 역시 선진국을 따라잡기에는 아직은 역부족이다. 유가 연동형 경제 체질을 개선하고 21세기 에너지 전쟁에 대비한 국가 책략 수립이 매우 시급한 연유가 여기에 있다. 우선은 에너지 자원 확보를 위한 '정상 외교'를 강화해야 한다. 중동이나 아프리카와 같은 자원 보유국들이 국가 원수 중심의 권위주의적 정치 체제를 형성하고 있고 자원 분야를 국가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는 까닭이다. 특히 자원이 풍부한 동북아 지역의 특수성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동북아에너지협력기구'와 같은 국제기관을 창설하는 데 한국이 주도적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 다음으로는 시베리아와 같은 지역에서 모험적으로 해외 자원을 개발할 수 있는 민간 대기업을 힘껏 키워야 할 것이다. 해외 자원 투자에 대한 과감한 세제 혜택과 자원 개발의 위험성을 보완할 수 있는 정부 보증 용자제와 같은 대책들이 이를 위해 요청된다. 또한 국내 증시가 활성화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에너지 자원 개발 펀드' 등의 조성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